

만남

2017 5월
통권 148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나의 성모성월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도움을 청하는 노래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70~172	8
기도 소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11
영적 상담		12
나눔		14
공동체 소식		16
지방 공동체 소식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23
미사안내		24

《교황님의 5월 기도지향》

❖ 선교: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화해와 정의와 평화를 예언적으로 증언하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성모성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이런 5월이 성모님께 봉헌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5월에는 갖가지 꽃들로 온갖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성모님께 봉헌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메이플이 있다면 오스트리아나 바이에른에는 ‘마이 바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동네의 한복판에 우뚝 세워진 ‘마이 바움’은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동네에서 제일 날렵하고 재빠른 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세워지는 ‘마이 바움’은 오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에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이 야말로 동네에서 제일 날렵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이 바움’은 동네의 모든 청년들에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워진 ‘마이 바움’ 근처에서는 선남선녀들이 전통적인 춤을 추는 장면들도 자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 바움’이야말로 농경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는 시기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마이 바움’을 통해서 노고를 잠시나마 씻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지혜를 담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좌신부로 있던 Pöllau성당에는 ‘Mai Andacht(마이 안다흐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6개의 마을공동체가 있었는데 각 마을마다 토요일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특정한 야외의 장소에 모여 성모님께 찬미와 전구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덕분에 토요일마다 이 공동체, 저 공동체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슴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성모님께 드리는 호칭기도를 할 때면, 아름다운 자연과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너무나 조화로워 그 아름다움에 아찔해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성모님과 자연은 5월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도 마음 안에 품고 산다면 5월 한 달의 힘만으로도 일 년은 거뜰히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노래(시편 54,3-9)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0장 “평화를 구하는 기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 평화의 주님! 저희 마음이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5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54, 3 하느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4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의 말씀에 귀 기울이소서.

5 이방인들이 저를 거슬러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이 제 생명을 노리기 때문이니

그들은 하느님을 자기 눈앞에 모시지도 않습니다. 셀라

6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받쳐 주시는 분이시다.

7 저의 적에게 악이 되돌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진실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8 제가 기꺼이 당신께 제물로 바치오리다.

주님, 당신의 좋으신 이름을 찬송하오리다.

9 당신의 그 이름이 저를 구원하시어
제 눈이 원수들을 내려다보겠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내 마음속에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은 사무엘기 상권 23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은거해 있던 다윗은 크일라 지방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와 추수한 것들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뜻을 여쭙고 크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도울 여력이 없다는 부하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크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다윗이 크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그를 해치기 위해 성읍을 파괴하려 합니다. 몰살당할 것이 두려웠던 크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하자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 나와 자신이 구해준적이 있던 지프 사람들이 있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지프 사람들 역시 사울에게 고발하여 다윗은 더 이상 피해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 과거에 다윗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사울이 두려워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할 때마다 분노의 마음이 들었겠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끈기 있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서도 마침내 승리하여 왕이 됩니다. 적들의 공격과 미움 앞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사람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12,17-19)

여러분은 기도의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과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3장 “주님은 나의 목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준주성법 제 3 권 내적 위로에 대하여

◆ 교리 170

제14장 선행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의 심판을 살핌

2 그러하오니 주님, 당신께서 도우시는 손을 거두신다면 성덕이라 부를 만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다스리기를 멈추신다면 지혜라 부를 만한 것 역시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어떤 용기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보호가 없으면 아무런 위험 없이 정덕을 닦아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거룩히 보살펴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아무리 애써 지킨다 해도 그 모든 것은 무익할 뿐입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버리시면 저희는 늪에 빠져 망할 것이며, 당신께서 저희를 찾아 주시면 저희는 일어나 살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항구히 서있지 못하지만 당신의 힘을 빌리면 견고해지고, 저희는 게으르지만 당신께서 도우시면 열렬해집니다.

3 그러하오니, 주님! 저 자신을 얼마나 천하게 여기고 낮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제게 어떤 좋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요! 허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심연 같은 심판 아래 제가 얼마나 깊이 승복해야 하겠습니까? 오! 헤아릴 수 없는 그 심판의 무게, 오! 헤엄쳐 건너 갈 수 없는 그 심판의 바다! 그 속에서 허무 외에 아무것도 제 것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스스로 영광을 취할 데가 어디 있겠으며, 덕행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 위에 내리시는 당신의 심오한 심판 속에 저의 모든 헛된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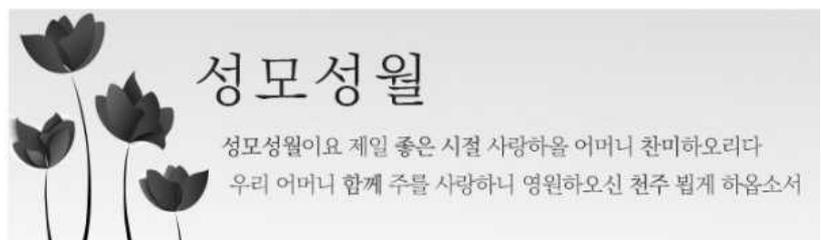
4 당신 대전에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진흙이 어찌 저를 만든 분을 거슬러 스스로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느님께 복종할 마음이 있는 이라면 어찌 헛된 말로써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편단심 진리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은 온 세상이 떠들어도 교만치 않을 것이요, 모든 희망을 하느님께만 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찬미한다 해도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 역시 모두 다 같은 허무에 불과하고, 그 말의 음파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여라.”(시편 117,2)

◆ 교리 171

제15장 좋아하는 모든 일에 취할 태도

1 주님의 말씀 아들(딸)아, 모든 일에 있어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여라. “주님, 이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당신의 영광이라면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게 좋다고 보시고 유익하다고 여기시거든 당신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제게 허락하소서.” “만일 제게 해롭다고 보시고 제 영혼을 구하는 데 유익하지 않다고 보시거든 그 뜻을 없애 주소서.” 사람의 생각에 바르고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모두 다 성령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이러저러한 바람들이 착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혹은 네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줄로 생각하였다가 나중에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바람직한 뜻이라 여겨지거든 항상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열정과, 겸손을 다하는 마음으로 참뜻을 원하고 구해야 한다. 특히 네 뜻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이 일이 당신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그대로,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뜻에 맞는 그 정도로, 뜻에 맞는 그때에 주소서.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시는 대로, 당신의 뜻에 맞고 당신 영광에 더 도움이 되는 그대로 제가 행하도록 하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를 데려가시고, 모든 일에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저는 당신의 손안에 있사오니 저를 돌리시고 이리저리 굴리소서.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무엇에든지 순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 마땅히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되게 하소서.”



◆ 교리 172

3 제자의 말(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은총을 주시어 제게 머무르시고, 그 은총이 제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또 끝까지 제게서 떠나지 않게 해 주소서. 제가 항상 당신의 뜻에 맞고 당신께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찾게 해 주소서. 당신의 의향이 곧 저의 의향이 되고, 제 뜻이 항상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시며, 또 항상 당신의 뜻을 잘 알아듣게 해 주소서. 당신과 저 사이에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일치하도록 해 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저 역시 원하거나 싫어하게 해 주소서.

4 모든 세속 일에 제가 상관하지 않게 해 주시고, 당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천대받는 것을 좋아하게 해 주시며 이 세상에서 아무도 저를 모르게 해 달라고 청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소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떠나 오직 당신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는 마음의 참된 평화 시며, 당신만이 홀로 저의 위안이시니, 당신 외에는 모든 것이 고되고 불안할 뿐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시편 4,9) 아멘.

제16장 하느님께만 구할 참다운 위로

1 **제자의 말** 제게 위로가 되리라 여겨지는 것들이 지금 이곳이 아닌 후세에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위로를 다 가지고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내 영혼아,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겸손한 이들을 거두어들이시는 하느님 안에서가 아니면 아무런 위로를 누릴 수가 없고 완전히 쉴 수도 없다. 내 영혼아, 조금만 참아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를 기다려라. 천국에서 만선만복 萬善萬福을 풍성히 누릴 것이다. 현세의 것을 과도히 탐하면 영원한 천상의 것을 잃을 것이다. 세상 것은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네 마음을 다스리고, 네 마음은 항상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어라. 너는 현세의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니 그러한 것을 누리려 네가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카엘 신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 프란치스코 교황님

동정녀 마리아, 사랑의 어머니,
 도움을 구하는 자녀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들어 주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를 굽어보시고 제 삶의 온갖 매듭들을 살펴보소서.

저는 참으로 절박하게 이 매듭들에 묶여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느님께서로부터 당신 자녀들의 삶에서
 매듭을 풀어주도록 위임받으셨으니,
 오직 어머니만이 당신의 아드님이시며
 저희 해방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매듭을 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손에 제 삶을 맡겨 드리오니,
 오늘 제 삶의 매듭을 풀어 주소서.
 (청원할 내용을 말한다)
 청하오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해주소서.

저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어머니,
 제가 청하는 바를 귀 기울여 들으시어
 미약한 저를 위로해주시고 지켜주시며,
 부족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아멘.

매듭을 푸시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질문

유통업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남성 신자입니다. 주일에도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주일 미사에 참례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미사에도 가지 못할 때가 많고, 가족들과 함께 미사참례하기도 어렵습니다.

답변 - 이찬 신부님(성 골롬반외방선교회 · 다솜터심리상담소장)

신앙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시는 형제님의 모습에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시려는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미사에 참례하는 많은 외딴 교우들로부터, 자신들의 희망이 부부 동반, 더 나아가 가족 모두와 함께 미사에 참례해 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관계로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동반으로 미사 참례를 하시려는 마음을 지니신 형제님이 대단해 보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의무적으로 주일 미사에 참례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것은 의무인 동시에 은총이며 신앙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주일미사 참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이 워낙 바쁜 탓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피치 못할 경우 미사 참례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허락합니다.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 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공소 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1995.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교회에서 정하는 법이나 지침의 근본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런 법이나 지침은 신자들이 실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탓이 없이 물리적으로 주일미사 참례가 불가능한 경우, 교회법이나 지침은 신자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이 말하기를 사람은 세 가지 자아 상태(아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로 그 인격을 이루고 이 세 개의 인격은 각각 분리되어 특이한 행동의 원천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이 자아는 행동, 사고, 감정에 있어서 부모 등 의미 있는 연장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내면화시킨 것으로 독선적, 비현실적, 무조건적, 금지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부모들의 많은 금지와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미사 등을 포함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채찍질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 안에 부모 등의 말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런 금지 등의 명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적 특성으로 주일미사를 바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올리고, 어디서나 나를 이끄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 자비하신 사랑의 신비를 기억하며, 미사 전례에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충실히 참여하면서 이 상황에서도 형제님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체의 소중함을 보여준 사제(김효철 그레고리오)

오래 전 피정지도를 위해 강의를 준비하다 만난 분은 다름 아닌 베트남의 성자, 반 투안 추기경님이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반 투안 추기경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체에 대해 진실한 신심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사랑으로 성체의 소중함을 잘 보여 준 추기경님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저술한 <지금 이 순간을 살며>라는 책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딘 디엠 전(前) 남베트남 대통령의 조카이기도한 반 투안 추기경님은 1928년 베트남 후에 지역에서 태어나 1953년에 사제서품을 받았고, 1967년에 나트랑의 주교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주교 임명은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1975년 성모승천 대축일에 체포된 그분은 이후 13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1988년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사랑하는 조국 베트남에서 추방되어 로마로 망명하였고, 끝내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반 투안 주교님은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2001년에 추기경님으로 서임되고 불과 1년 후인 2002년에 계속된 암 투병 중 9월 16일에 향년 74세의 나이로 선종하셨습니다.

반 투안 추기경님은 오랜 세월 독방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오로가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듯이 신자들에게 달력종이에 희망의 글을 적어 보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세 권의 옥중 묵상집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반 투안 주교님은 감옥에서 ‘공동체에 편지를 쓰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면의 소리에 따라 그는 폐지인 달력 뒷면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분은 단 한 순간도 망각하는 일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며’ 모든 이에게 사랑과 웃음, 희망을 전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바로 미사, 성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빵을 잘게 부수어 성체성사를, 손바닥에 포도주 세 방울과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미사를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분도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와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예수회 회원, 취제크 신부님처럼 미사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 준 양식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구엔 반 투안 추기경님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으로 점철된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모든 것은 하느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그분은 매일 매일의 삶을 생생하게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비결이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바로 그 힘을 미사의 성체에서 얻는다고 전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리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며 살리라.”

그분의 글 중에서 다음과 같은 미사에 관한 감동적인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성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한때 저는 금으로 된 성반과 성작으로 미사를 봉헌하였으나 이제 당신의 성혈은 제 손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저는 대회와 회의를 위해 세계 각지를 여행하곤 했으나 이제 저는 창문도 없는 좁은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한때 저는 감실에 모신 당신을 조배하곤 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당신을 제 호주머니 속에 밤낮으로 지니고 다닙니다. 한때 저는 수천 명의 신자들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곤 했습니다만 이제 밤의 암흑 속에서 모기장 밑으로 성체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트 위에서 흰 버섯이 자라는 이 감방, 여기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당신께서는 제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미사의 소중함, 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신비를 묵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5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필립보 (St. Pillip)	김경열 이수용	16일	요한 (St. John)	홍경영
4일	카타리나	오경은	22일	율리안나 율리아	최효정 방수정
8일	데시데라토	방은일			
11일	비발도	김건			
12일	젬마 (St. Gemma)	김(이)정자 방영자			
14일	크리스티안 (St. Christian)	이성원	30일	요안나 (St. Joana)	윤석순
25일	소피아 (St. Sophia)	이신자 이공종			

❖ 5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야곱 (St. Jacob)	정광하(H) 이태호(O)	14일	마리아도미니카	이혜진(H)
				니콜	김지희(H)
6일	베네딕타 (St. Benedicta)	민병진(H)	15일	소피아	박영희(B)
8일	이다	최이다(H)			
12일	젬마	김선주(H)	22일	릿따	김남화(B)

❖ 5월 성가번호

5월	입당	봉헌	성체	파견
7일	55	211	258	245
14일	138	512	153	276
21일	137	217	198	244
28일	가족미사			

❖ 5월 미사 전례 봉사자 ❖

5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4월 30일	정영옥(살로메) 방영자(젼마)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정수(토마스)	3구역
7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허길조(안드레아) 허명자(가밀라)	이현목(요셉) 최장용(레오)	4구역
14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윤예진(모니카) 김잔디(아그네스)	주일학교	청년회
21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배성우(도밍고)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요셉 마리아회
28일	가족미사			1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일	3월 26일	4월 2일	4월 9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23일
계(€)	159.02	195.19	180.20	92.50	325.70	220.30
2차		153.88				

❖ 자진헌납금 ❖

2017년 3월 20일 — 2017년 4월 23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박성아,	김기연,	김민수,	한규호,	이종화,	이정은,	서세원,
민경화,	최순남,	손수희,	김계희,	최장용,	강신행,	강순행,
이기열,	이경규,	이현목,	이중지,	이공종,	이석우,	이정수,
이수웅,	김용일,	김건,	김경미,	김형웅,	현영애,	한선지,
우동천,	육종인,	진윤희,	최승진,	배성우,	문경희,	신옥희,

구좌입금 :

백정선, 이철우, 홍경영, 허두옥, 서유미, 이명원, 이성원,
이상봉, 이정훈, 박준병, 김치수, 김수혜, 김진호, 김대현,
강일남, 최현봉, 최화영, 남궁춘배, 허길조, 영희 Eggerstedt,
오옥수,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5월 1일(월)부터 5월 5일(금)까지 주임신부님은 그라츠교구와 마산교구의 자매교구 사회복지 교류에 관련된 일로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다녀오십니다. 평일미사는 남영우(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봉헌하실 예정입니다.

2. 5월 9일 화요일 평일미사에 함부르크 교구의 새 보좌주교님 Horst Eberlein 주교님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시고 공동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3. 5월 10일 수요일 19:00시에 미사와 더불어 성모님의 밤 행사를 만남 성당 강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성모님께 초와 꽃을 봉헌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수요일 오전미사는 평소와 같이 있습니다.

4. 5월 11일(목)부터 5월 13일(토)까지 유럽 한인천주교회 레지오 단원 피정이 Bergische Gladbach에 있는 카르디날 슐테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8명이 참여합니다. 좋은 피정이 되길 모두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주임신부님은 12일(금) 고해성사 시간 때 피정에 함께 합니다.

5. 함부르크 성당과 브레멘, 하노버, 오스나브뤽 지방공동체뿐만 아니라 오슬로 지방공동체까지 모든 공동체가 함께 6월 3일(토)~4일(주일) 성령강림대축일에 1박 2일로 "본당의 날 행사"를 Jugendherberg Ülzen에서 가집니다.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6.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 윤예진(모니카), 노하진(휘데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일학교는 학생들의 어머니와 주임신부님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
2. 3월 15일 고헌완(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3. 3월 18일 14:00시 Visbek , Haus Marienstein에서 공동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습니다.
4. 지난 2017년 3월 6일, 대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대원음악상에 작곡가 박영희 소피아, 예명 Younghi Pagh-Paan 자매님께서 특별공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 브레멘 공동체는 새 회장님으로 김영자(테레사) 전 부회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4월 정기미사는 4월 8일(토), 주님 수난 성지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4월 기도모임은 없었습니다. 휴가 중인 또는 여행 중인 교우님들,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시길 기원했습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윤 예 진 모 니 카	0157 5483 9145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 영 애 헬 레 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 정 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5 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월	근로자의 날		주임신부님 오스트리아 그라츠 교구 방문
2	화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3	수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석가 탄신일		
4	목		꾸리아	
5	금	어린이날, 입하		
6	토			브레멘 공동체
7	일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생명 주일)	사목협의회	
8	월	아버이 날		
9	화		Eberlein 보좌주교님 방문	
10	수		성모님의 밤(19:00)	오전미사도 있습니다
11	목		유럽 레지오 피정 (금요일에는 주임신부님도 고해성사 참여)	
12	금			2구역 소공동체
13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4	일	부활 제5주일	청년 소공동체	
15	월	스승의 날		
16	화			
17	수			
18	목	5·18 민주화 운동		
19	금			
20	토			하노버 공동체
21	일	부활 제6주일 부부의 날, 소만		
22	월	교육 주간		
23	화			
24	수			
25	목		연령회	
26	금	성 필립보 네리 사제		
27	토			
28	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청소년 주일)		가족미사
29	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30	화	단오		
31	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첫 째, 둘째 금요일 17시 30분(복음 나누기회, 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